우도 자연·역사에 문화예술을 더하다

8년간 방치된 담수화시설 창작·공연 공간 조성 계획
주민 숙원사업 해중전망대 오봉리 공유수면 설치 추진

예술 창작 및 공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 우도 담수화시설(사진 왼쪽). 지난 5일 우도초·중학교 특설무대에서 '우도의 역사와 삶을 예술로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우도창작가곡의 밤'. 사진=우도면 제공

우도면(면장 김문형)은 조선조 숙종 23년(1697년) 국유목장이 설치되면서부터 국마를 관리, 사육하기 위해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헌종 8년(1842) 입경허가, 헌종 10년(1844)에 김석린 진사 일행이 입도해 정착했으며 1900년에 향교 훈장 오유학 선생이 연평으로 명명했다.

이후 입도한 주민들은 영일동과 비양동, 고수동, 전흘동, 주흥동, 우목동, 천진동 등 8개 동으로 나누어져 동네를 이루기 시작했다.

우도는 물소가 머리를 내민 모양(우두형)으로 명명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또 이곳을 물에 뜬 두둑이라는 뜻에서 연평리로 정해 구좌읍에 속해 있었는데 1986년 4월 1일 우도면으로 승격돼 현재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면적 6.18㎢에 1006세대·1869명(남 980, 여 889)이 4개 리·12개 자연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의 동쪽 끝에 위치한 제일 큰 섬. 완만한 경사를 이룬 비옥한 토지, 풍부한 어장, 우도팔경 등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천혜의 경승지.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도는 올해 지난 8년 동안 방치해온 담수화시설을 예술 창작 및 공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담수화시설은 기계실과 약품실, 물탱크실, 감시실, 사무실이 들어선 건축물(연면적 674㎡)과 1일 500t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저수지(5만t)이다. 지난 1998년 27억원을 들여 건립됐으나 2011년 해저 상수도관 개설로 본래 기능이 폐쇄돼 현재까지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우도는 앞바다에 '해중전망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우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약 150억원을 투입해 우도면 오봉리 공유수면 2000㎡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망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중전망대 내부에서 해녀의 물질과 산호초 등 우도 바닷속 풍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인·허가 절차의 첫 관문인 경관심의에서 결정이 유보됐으나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도 펼치고 있다.

우도면은 지난 5일 우도초·중학교 특설무대에서 주민, 관광객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우도 창작가곡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우도면이 주최해 '우도의 역사와 삶을 예술로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공연은 바리톤 고성현이 특별출연했으며, 소프라노 권효은, 바리톤 김상주, 콰므로 보체, 소프라노 김지은, 구좌합창단이 우도 이야기를 담은 7곡의 우도 창작 가곡 등을 열창하는 가운데 함께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김문형 면장은 "우도면을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우도의 역사와 삶을 관광 자원화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전통 이어가는 대표 행사로"

불미공예·솥 굽는 역시 등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

제주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제28회 덕수리 전통민속 재현행사가 지난 5~6일 이틀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민속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

덕수리마을회(이장 송승민)가 주최하고, 덕수리민속보존회(회장 송승민)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관광객과 도민 등 1500여명이 방문했다.

행사에서는 안덕면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7호 '불미공예', 제9호 '방앗돌 굴리는 노래'와 '솥 굽는 역시' 등이 재현돼 눈길을 끌었다.

또 빙떡 만들기, 4·3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예부터 본토와의 교역이 어려웠던 제주는 생활 필수품이나 농기구 등을 자급자족해 왔고, 덕수리에서 각 가정마다 쓰이던 농기구의 대부분을 생산해 왔다. 또 밭에서 수확한 보리, 콩 등을 도정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연자방아의 웃돌과 알돌을 산이나 바다에서 만들고 마을로 옮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덕수리마을회는 이처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전통계승을 위해 매년 재현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불미공에 무형문화재 단체지정을 위한 마을 차원의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

송승민 덕수리장은 "제주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적 행사로 자부심을 갖고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선인들의 멋과 여유 되새기는 시간

제8회 삼도풍류축제

삼도2동(동장 강선보), 삼도풍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고상호)는 지난 5일 관덕정과 제주목관아 일대에서 제8회 삼도풍류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삼도2동민속보존회의 풍물 길트기를 시작으로 삼도풍류어린이 백일장과 사생대회, 노래자랑, 제주남·북초등학교 어린이 동아리 공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고고장구 등이 무대를 채우고 삼도2동 새마을부녀회의 천냥국수와 통장협의회의 전통음식, 제주북초학부모회에서 엄마표 간식으로 먹거리부스를, 원도심입주작가협의회 입주작가와 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 이아 등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화합형 축제로 진행됐다. >>사진

삼도풍류 백일장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관덕정 마루에서 직접 글을 짓는 체험을 했고, 사생대회 참여자들은 축제장 곳곳에서 선인들의 여유와 멋을 되새기며 그림을 그렸다. 특히, 목관아 앞에서 이루어진 수문장 교대식과 전통 무예 공연은 축제 방문객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으며 축제의 백미를 장식했다.

고대로기자

58회 탐라문화제 경연 대비 오라동민속보존회 실전 연습

오라동민속보존회는 지난 4일 오라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제58회 탐라문화제 경연 실전 연습에 매진했다.

'조상의 얼 조설대'라는 작품명을 내놓고 1905년 당시 젊은 유림 12명이 을사늑약에 항거하는 과정을 결의있게 표현해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40명의 참가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연습에 몰입했다.

김형후 오라동장은 "연습 현장을 같이하고 이번 경연을 계기로 오라동의 자랑스런 역사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독립 위해 피 흘린 선열들의 희생 기억해야"

도내 최고·최대 규모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101주기 기념식 개최

지난 6일 서귀포시 중문동 법정사에서 101주기 제25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이 열렸다.

"자주독립 위해 피 흘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101주기 제25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이 지난 6일 서귀포시 중문동 법정사(의열사)에서 개최됐다.

중문청년회의소(회장 김철진)·중문JC특우회(회장 오창헌)가 주최·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유족과 지역주민, JC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걷기체험을 시작으로 서제, 식전공연,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1918년 10월,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운동을 비롯해 민족항일의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제주인의 드높은 애국심과 구국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자주독립을 위해 피 흘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 후손들이 평화의 섬 제주를 오롯이 만끽하며 삶을 영위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은 1918년 10월7일 사팔 승려들이 중심이 돼 신도와 민간인 등 400여명이 조직적으로 일제 탄압에 항거한 운동이자 1919년 3·1운동보다 5개월이나 앞선 제주도내의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이 운동으로 모두 66명이 검거돼 5명이 옥사했으며 31명은 최고 10년에서 최하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미래의 중심! 함께 하는 한공인!"

경 제31회 翰林工高同門의 날 축

개교 67주년기념 한공인 한마당 축제에 동문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13일(일요일) 10:00 ■ 장 소 : 모교운동장

| 주최 :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 | 주관 : 한림공업고등학교 제34회 동창회

경기종목 축구, 배구, 줄다리기, 이벤트 계주, 여성 팔씨름

사전행사 신명·희망 문화축제
- 일시 : 2019년 10월 9일(수) 19시
- 장소 : 제주문예회관 대극장

사전경기
축구대회 | 2019. 9.22(일)09 :00 외도운동장
등산대회 | 2019. 9.29(일)09 :30 노꼬메 일대
골프대회 | 2019. 10.3(목)12:30 타미우스CC

나눔행사
- 헌혈증 기부행사
- 아나바다장터 운영

대 회 장 총동창회장 김동완

집행위원장 제34회 동창회장 김용식

제30대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 임원

▶ 역대회장
제1~2대 故양문정(1회) 제3~4대 故홍창수(2회) 제5대 故홍관옥(3회)
제6~7대 故이영준(4회) 제8~9대 故박인기(4회) 제10대 故김성욱(2회)
제11대 故고춘봉(1회) 제12~14대 故김창도(4회) 제15~16대 故강정효(3회)
제17대 故안태의(5회) 제18~20대 양우철(4회) 제21대 김중근(6회)
제22대 진성택(9회) 제23대 김강우(10회) 제24대 홍은열(11회)
제25대 故장창도(12회) 제26대 양팔진(12회) 제27대 현진수(16회)
제28대 고승암(18회) 제29대 김상희(19회)
▶ 직전회장 김상희(19회)
▶ 회 장 김동완(20회)
▶ 수석부회장 박영부(21회)
▶ 상임부회장 배성문(22회)
▶ 감 사 좌청옥(24회) 장군태(26회)
▶ 사무처장 고경립(25회)

부 회 장
20회: 강공식 이승림 김성배 김한주 조길홍 이태언
21회: 김택보 고철원 김영문 김영철 조창흥
22회: 변장선 강천희 양영보 이시영 문명수 강경호 박문석 이동화 양태종 신성섭
23회: 김홍삼 이철수
24회: 임성봉 고종수 양영철 김택남 강승철 고석보
25회: 좌종헌 현동수 조영훈 이부성 양홍우 이왕석
26회: 김병효 고윤권 송철호
27회: 조근배 강철호 박원철 안창범 한명관 강영돈 부준배 이양문
28회: 고영남 전정배 김경복 부태성 최영남 강재영
29회: 양광수 김상조 김기춘 강병수 문승준 김석만
30회: 고창호 고승필 고용호 강봉찬 백창엽
31회: 김영효 김기남 김성익 송문수
32회: 강경돈 임필재 좌승암 김동언 강순원
33회: 황금신 김흥철 박영성
34회: 김용식

▶ 수석집행부위원장 : 고기동 김석범
▶ 부 위 원 장 : 고병준 고윤석 박정식 최 원 이광우 홍상기
▶ 사 무 국 장 : 고담용

技術報恩

연락처
제31회 한림공고동문의날 행사집행위원회
T. 712-1205

기별동창회가 결성이 안 된 기수도 참석이 가능합니다!!